

인도증시 반등 시동 ETF 수익률 급등세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열골에 웃음꽃이 피었다. 작년 가을부터 부진을 이어오던 인도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개별 주식 주가 상승에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인도 증시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5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ETF 수익률 상위권에는 인도 관련 ETF들이 대거 포함됐다.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가 14.54%의 수익률을 1위를 기록했으며, 'KODEX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가 11.86%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관련 ETF 수익률 상위 포진
정부 경기 부양책에 증시 살아나
4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 기록**

**외국인 4개월만에 최대 日 순매수
소비·생산 호조, 경기회복 기대감
인구·중산층 확대 등 성장성 주목**

또한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 액티브(6.97%), '에셋플러스 인도일 등기업포커스20액티브'(6.60%), 'TIGER 인도니프티50'(6.56%), 'KODEX 인도니프티50'(6.54%), 'KIWOOM인도니프티50'(6.32%)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흐름은 인도 증시가 이달 들어 4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덕분이다. 인도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50지수는 2월 말까지 약 7% 하락했으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 이달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양대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과 센세스30 지수는 각각 6.93, 6.54%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는 21일 하루 동안 747억 루피(약 1조 2759억원)를 순매수하며 4개월 만에 최대 일일 매수액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인



ChatGPT로 생성한 인도 ETF 이미지.

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중국 중에서도 인도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대비 3.61%)와 1월 산업생산지수(5.01%) 등 최근 발표한 지표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 요인이다. 시장에선 고물가 우려가 완화되면 준비은행이 금리인하를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도 경제 및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인도 중앙은행(RBI)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업계에서도 인도 증시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 경제와 주식 시장은 장기간의 인구 증가, 젊은 생산 가능인구, IIT(인도 공과대학교)로 대변되는 높은 학구열, 영어 사용으로 낮은 언어 장벽, 신흥시장(EM) 내 독보적인 GDP 성장, 소득 개선과 이에 따른 중산층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대표 지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리스크에서도 벗어나 있다. 인도는 수출 의존도가 낮은 내수 중심 성장 국가다. 2024년 기준 인도 국내 총생산(GDP) 구성중 순수입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미국 관세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미 지난 달 인도-미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미국산 원유 및 군사 장비 구매 확대를 약속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DB금융투자, DB증권 사명 변경안 통과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금 배당 주당 400원 승인

DB금융투자는 25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DB증권으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현금배당은 주당 400원

으로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곽봉석 DB금융투자 사장은 "지난해 9월 중소형 증권사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면서 "올해 경영 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 중심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고객기반 확충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진정성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관세 완화 기대... 테슬라·팔란티어 '사자'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테이크다운 확산에도
일주일간 2808억 규모 순매수
레버리지 ETF도 지속 베팅**

최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 1위는 '테슬라'로, 약 1억 9110만 달러(한화 약 2808억5967만원)에 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선거 기간 동안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정부효율부(D

OGE) 수장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면서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ETF'가 순매수 2위를 기록했다. 순매수 결제액은 1억2253만 달러(1800억8234만원)로, 테슬라의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3위는 미국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로, 순매수 결제액은 약 8457만 달러(1242억9252만원)에 달했다. 팔란티어는 지난해부터 AI 모델 성능 개선과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이

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투자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iBoxx USD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드 ETF'가 8028만 달러(1179억7948만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또한,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셔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는 약 6838만 달러(1004억9124만원)가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특히 기술주와 러셀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과 실망으로 부진했던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이번엔 강하게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기업은행·농협조합 2000억대 부당대출 적발

**금감원, 부당거래 사례 발표
전현직 임직원·친인척 등과 공모
빚셈, 임원 4명 100억대 사택 제공**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또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빚셈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100억대에 달하는 고가 사택 제공을 셀프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임행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 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IBK기업은행

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

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빚셈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앞서 손해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

코스콤, 증권망 인프라 '스탁넷' 고도화

**주문·시세망 통신속도 80% 향상
자본시장 정보 전달 신속성 개선**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장개설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코스콤이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망(스탁넷)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코스콤은 최근 '스탁넷(Stock-Ne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현물·파생시장의 주문망과, 시세망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 스타넷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 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들의 시스템이 연결된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망으로 지난 1991년에 가동했다. 자본시장 현물 및 파생시장의 주문·체결 업무와 시세 정보를 지원하고, 증권 유관기관 연동망을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주문망 및 시세망 모두 통신속도가 기존 대비 80% 이상 크게 개선됐으며, 네트워크 성능과 서비스 안정성도 함께 향상됐다. 특히 시세망은 통신접속 용량이 10배, 서비스 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주총서 3연임 확정



교보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대표(사진)이사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박봉린 대표와 함께 2인 각자대표 체제로 교보증권을 이끌게 됐다.

이 대표는 모회사인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으로, 2021년부터 교보증권 대표 자리에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